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현은민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The Effect of Perceived Family Resilience on Family Strengths among University Students

Eun Min Hyun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지각과 가족탄력성의 3가지 하위영역인 신념체계와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G지역 대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 수준과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은 탄력집단과 낮은 비탄력 집단 간에 가족건강성의 차이가 나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을 높게 지각하는 탄력집단이 비탄력 집단에 비해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았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신념체계에서 가족강점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조직유형은 역할 안정성과 응집력과 가족자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과정은 협력적 문제해결과 정서반응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re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strength a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409 university students in G a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level of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the difference in the family strength between the resilient group and non-resilient group and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strength.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were moderately high. Second, the students with positive perceptions of all three family resilience sub-factors (resilient group) also had a higher perceived family strength than the non-resilient group. Third, gender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family strength, with the male students having a higher perceived family strength. All thre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belief system and organizational pattern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family strength. In particular, the belief system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affecting the family strength. The role clarity, family cohesion and family resource of the family organizational pattern were significant factors. Moreover,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nd open emotional communication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family strength.

Keywords : Belief System, Communicational Processes, Family resilience, Family strengths, Organizational Pattern

본 논문은 2015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 Min Hyun(Andong Univ.)

Tel: +82-54-820-5486 email: emh@anu.ac.kr

Received January 3, 2017

Revised (1st February 3, 2017, 2nd March 2,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은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많은 맞벌이 가정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나 노인부양문제, 저출산 문제, 이혼 증가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문제와 가족해체의 증가는 개인 뿐 만 아니라 사회문제이자 국가의 부담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건강한 가족이 확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은 개인과 사회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연결 되고 상호의존하면서 통합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여 건강한 개인-가정-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순기능을 담당하므로[1]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 아래 실패하는 가족에 비해 성공하는 가족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2]. 건강한 가족은 가족관계와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그것을 통해 가족성원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전체로서의 가족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가족이다[3]. 건전한 가족관계의 경험과 건강한 가정은 바람직한 인간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정의 과도기에 있으며 대인관계, 가족관계, 가치관, 장래문제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과 성인으로서의 지위, 확대된 대인관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심리적 갈등과 다양한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다[4].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순한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5]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이 보고되었다. 특히 가족탄력성은 가족적 단위에서 유발되는 위

기상황 및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예측요인으로 보고됨 [6,7]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Walsh [8]에 의하면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과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Walsh [8]는 가족탄력성 접근의 핵심과정을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이 세 가지 구성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가족탄력성의 시너지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Stinnet과 Defrain [2], Silberberg [9]도 가족탄력성의 질적 수준이 가족건강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고 Hawley와 Dehann [7]도 생애주기와 가족관점의 연구를 통해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 초석을 마련하였다[10].

앞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그 가족을 꾸려나가려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족탄력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건강하게 인지하는지, 환경적 보호요인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미래의 한국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이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신념체계, 가족의 조직패턴, 가족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들 하위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8] 가족 간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처럼 가족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게 되므로[2,9] 가족탄력성은 가족건강성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가족을 구성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 우리사회에서 가족건강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개인적 보호요인과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가족적 보호요인[11-14] 등 단편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가족적 보호요인 간의 관련성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0]가 보고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적 보호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고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

성과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어떠한지 둘째, 가족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 셋째,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에 초점을 두어 가족신념체계, 가족조직 유형, 의사소통과정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G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총 43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수거된 설문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미응답한 21부를 제외한 409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주장[2,7-9]과 선행연구[10]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에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가족 수, 학력수준, 종교[15-18]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고 가족탄력성의 세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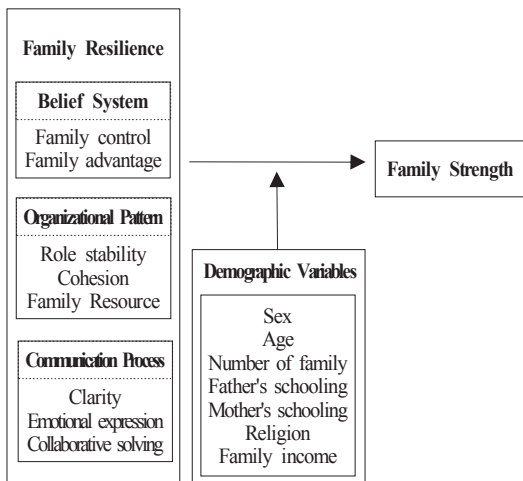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3 측정도구

2.3.1 가족탄력성(독립변수)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lsh [8]의 가족탄력성의 세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3.1.1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의미부여 능력과 긍정적 시각, 강점, 영성으로 정의되며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으로 구성하였다.

2.3.1.1.1 가족통제감

Antonovsky와 Sourani [19]가 개발한 가족통제감(FSOC:Family Sense of Coherence)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의 이해력, 처리력, 의미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 로 나타났다.

2.3.1.1.2 가족강점

가족강점은 Olson [20]이 개발한 가족강점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자신감과 가족의 일치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2.3.1.2 조직유형

조직유형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역할안정성과 응집력, 가족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2.1 역할안정성

Epstein, Baldwin과 Bishop [21]이 개발한 가족기능 평가(FAD:The Family Assessment Device)척도 60문항 중 역할안정성 관련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으로 나타났다.

2.3.1.2.2 응집력

응집력은 Olson [22]이 개발한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도 FACESIII(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중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응집성 항목을 사용하였고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2.3.1.2.3 가족자원

가족자원은 가족자원의 양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McCubbin, Patterson과 Wilson [23]에 의해 만

들어진 FIRM(The Family Inventory of Resource for Management)을 Kim [24]이 수정, 보완한 2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2.3.1.3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 과정의 의사소통의 명확성, 개방적 감정표현과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측정하기 위하여 FAD(The Family Assessment Device)척도[21]의 문항 중 의사소통차원, 정서반응차원, 문제해결차원의 12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3.1.3.1 의사소통 명확성

가족 간에 개방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이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8$ 로 나타났다.

2.3.1.3.2 정서반응

가족이 적절히 의사소통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s $\alpha = .61$ 로 나타났다.

2.3.1.3.3 협력적 문제해결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s $\alpha = .74$ 로 나타났다.

2.3.2 인구학적 변인 (통제변수)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가족 수, 학력수준, 가족소득, 종교로 구성하였고 성별과 종교는 가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2.3.3 가족건강성(종속변수)

가족건강성 척도는 Eo와 Yoo [25]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수정 보완한 Han [2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원간의 유대, 의사소통, 가치체계 공유 내용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Items	Cronbach'S α	
Family Resilience	Family Strength	27	.94	
	Belief system	Family Control	9	.67
		Family Advantage	12	.84
	Organizational Pattern	Role Stability	9	.66
		Family Cohesion	10	.85
		Family Resource	20	.81
	Communication process	Clarity	4	.68
		Emotional Expression	4	.61
		Collaborate Solving	4	.74
Demographic Variables	Sex, Age, Number of family, Father(Mother) Schooling, Religion, Family income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Ver 19.0 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를 알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탄력성 하위요인에 초점에 두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회귀분석에 통제변수를 구성하여 포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37명으로 58.0%, 남자가 172명으로 42.0%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미만이 27.8%, 20세-25세가 68.6%, 26세 이상이 3.4% 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이 34.7%로 가장 많았고 1학년과 3학년이 25.4%로 동일하며 4학년이 14.4%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명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5명 29.6%, 6명 이상이 8.8%, 3명이 7.6%, 2명 2.0% 순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에서는 고졸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30.1%, 중졸 이하가 14.7%, 대학원 졸이 2.7% 순 이었으며 모 학력도 고졸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17.1%, 중졸 이하 16.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18.6%, 불교 15.2%, 천주교 3.4%순으

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은 200-300만원이 35.3%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24%, 2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이 16.1%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9)

Variables		N(%)
Sex	Male	172(42.1)
	Female	237(57.9)
Age	20 Under	114(27.8)
	20-25	281(68.6)
	26 Over	14(3.4)
Grade	1	104(25.4)
	2	142(34.7)
	3	104(25.4)
	4	59(14.4)
Number of family	2	8(2.0)
	3	31(7.6)
	4	213(52.1)
	5	121(29.6)
	6 Over	36(8.8)
	Father schooling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215(52.6)
College		123(30.1)
Graduate		11(2.7)
Mother schooling	Under middle school	67(16.4)
	High school	272(66.5)
	College	70(17.1)
Religion	Christian	76(18.6)
	Catholic	14(3.4)
	Buddism	62(15.2)
	None	252(61.6)
	Others	5(1.2)
Family income	Less than 200	66(16.10)
	200-300	143(35.0)
	300-400	98(24.0)
	400-500	66(16.1)
	More than 500	36(8.8)

3.2 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 수준

본 연구의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수준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족건강성의 수준은 3.53점/5점 이었고 가족탄력성의 수준은 신념체계가 3.31/5점이며 신념체계의 하위요인인 가족통제감이 3.08점 가족강점이 3.47점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은 3.29점/5점이며 조직유형의 하위요인인 역할안정성이 3.42점, 가족응집력이 3.53점, 가족자원이 3.11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과정은 3.32점/5점이며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인 명료성이 3.41점, 정서반응이 3.24점 그리고 협력적 문제해결이 3.31점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Level of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Variables	Minimum	Maximum	M	SD
Family strength	1.00	5.00	3.53	.61
Belief system	1.76	4.90	3.31	.44
Family control	1.22	4.67	3.08	.43
Family advantage	1.67	5.00	3.47	.54
Organizational pattern	1.69	4.56	3.29	.43
Role stability	1.78	4.78	3.42	.45
Cohesion	1.00	5.00	3.53	.58
Family resource	1.60	4.40	3.11	.45
Communication process	1.33	4.67	3.32	.51
Clarity	1.00	5.00	3.41	.59
Emotional expression	1.25	5.00	3.24	.62
Collaborative solving	1.00	5.00	3.31	.61

3.3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탄력성 하위요인별 평균값 $\pm 1/2 SD$ 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4. Difference of family strengths by level of family resilience

Variables	Group	N	M	SD	t
Belief system	Low	115	2.94	.47	-17.92 ***
	High	118	4.02	.44	
Family control	Low	108	3.13	.63	-10.76 ***
	High	138	3.89	.47	
Family advantage	Low	121	3.00	.51	-16.85 ***
	High	104	4.08	.43	
Organizational pattern	Low	113	2.92	.48	-18.32 ***
	High	131	4.01	.44	
Role stability	Low	123	3.05	.57	-12.94 ***
	High	151	3.89	.49	
Cohesion	Low	127	3.01	.51	-16.25 ***
	High	116	4.04	.46	
Family resources	Low	107	2.97	.54	-15.35 ***
	High	124	4.01	.48	
Communication processes	Low	108	3.01	.57	-12.77 ***
	High	109	3.97	.53	
Clarity	Low	123	3.15	.63	-9.47 ***
	High	156	3.82	.54	
Emotional expression	Low	107	3.19	.64	-7.49 ***
	High	100	3.82	.55	
Collaborative solving	Low	162	3.09	.53	-15.75 ***
	High	129	4.02	.44	

***p<.001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모두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족건강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은 신념체계의 가족통제감($t=-10.76, p<.001$)과 가족강점($t=-16.85, p<.001$) 조직유형의 역할안정성($t=-12.94, p<.001$)과 응집력($t=-16.25, p<.001$), 가족자원($t=-15.35, p<.001$)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명료성($t=-9.47, p<.001$)과 정서반응($t=-7.49, p<.001$), 협력적 문제해결($t=-15.75, p<.001$)이 높은 탄력집단이 낮은 비탄력 집단에 비해 가족건강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3.4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 일부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VIF 값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VIF값이 1-4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에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통제변수만으로 가족건강성의 설명력을 살펴보고 모델 2는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신념체계의 하위요인의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델 3은 조직유형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델 4는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요약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학적 변인들은 변량의 11%정도 설명하였고 성별($\beta = -.23, p<.001$)과 아버지의 교육수준($\beta=.14, p<.05$)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남학생이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하위요인인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이 투입된 모델 2에서는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beta=-.13, p<.01$)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가족강점($\beta = .61, p<.001$), 가족통제감($\beta = .22,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족 신념체계의 설명력이 52.2%나 크게 증가하여 총 63.4%의 설명력을 보여주어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고 자신의 가족강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통제감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strength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Constant)		5.96		-0.24		-1.74		-1.23
Sex(d)	-0.23	- 3.92***	-0.13	-3.50**	-0.10	-3.01**	-0.09	-2.75*
Age	0.04	0.77	0.03	0.86	0.05	1.43	0.03	0.93
Number of family	0.00	0.04	0.02	0.50	-0.00	-0.04	0.01	0.20
Father's schooling	0.14	2.20*	0.01	0.23	-0.01	-0.16	-0.01	-0.24
Mother's schooling	0.09	1.41	0.05	1.17	0.00	0.06	-0.00	-0.10
Religion(d)	0.06	1.22	0.05	1.52	0.01	0.39	0.01	0.37
Family income	0.10	1.81	0.01	0.26	-0.02	-0.75	-0.01	-0.47
Family control			0.22	5.63***	0.13	3.54***	0.11	3.07**
Family advantage			0.61	15.27***	0.26	4.89***	0.24	4.58***
Role stability					0.08	1.87	0.08	2.02*
Cohesion					0.29	6.28***	0.22	4.55***
Family resource					0.21	3.81***	0.14	2.55*
Clarity							0.05	1.29
Emotional expression							0.09	2.43*
Collararative solving							0.22	4.68**
R Square	0.11		0.63		0.71		0.74	
△R Square			0.52		0.08		0.02	
F	6.20***		66.37***		70.85***		63.14***	

p<.05, *p<.01, ****p<.001

d (dummy Variables): Sex(male= 0, female=1), Religion(none=0, 1= have)

모델 3은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의 하위요인인 역할 안정성과 응집력, 가족자원을 모델 2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8%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여 총 7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가족응집력($\beta = .29, p < .001$), 가족강점($\beta = .26, p < .001$), 가족자원($\beta = .21, p < .001$), 가족통제감($\beta = .13, p < .001$), 성별($\beta = -.10, p < .01$),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가족의 응집력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강점이 높을수록, 가족자원이 많을수록,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모델 4는 가족탄력성의 가족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최종분석 모형으로 2%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총 7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최종 분석모형에서 가족탄력성 하위요인의 개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강점($\beta = .24, p < .001$), 가족 응집력($\beta = .22, p < .001$), 협력적 문제해결($\beta = .219, p < .001$), 가족자원($\beta = .14, p < .05$), 가족통제감($\beta = .11, p < .01$), 정서반응($\beta = .09, p < .05$), 성별($\beta = -.088, p < .05$), 역할안정성($\beta = .08,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강점이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강할수록, 협력적 문제해결을 하고 가족자원이 많을수록, 가족통제감이 높고, 개방적 정서반응을 할수록, 역할분담과 수행이 안정적일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족탄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탄력성 3가지 하위 영역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의 설명력이 74%에 이르러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큰 영향요인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남학생이 가족건강성을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탄력성 강화 방안을 다르게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을 어느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가족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가족 신념체계와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에 초점을 두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

성을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 모두 높은 탄력집단이 낮은 비탄력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하위요인 중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의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신념체계의 가족강점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다. 조직유형의 영향력은 응집력과 역할안정성, 가족자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과정은 협력적 문제해결과 정서반응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Keum 등[27]과 Park [2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족탄력성도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학생들이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 모두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높은 결과는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대한 연구[29]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가족탄력성은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강점을 구성하는 가족의 능력이므로[30] 탄력적인 가족은 비탄력적인 가족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들 모두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며[7,8] 가족탄력성의 세 하위영역 중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가족에 대한 신뢰감과 긍정적 사고방식, 일을 수행하는 가족의 능력과 함께 잘 지내는 가족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가족강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응집력을 제공하고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가족규범을 형성하므로[10] 가족강점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가족통제감도 뚜렷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Patterson과 Garwick [31]도 가족통제감이 삶에 영향을 주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기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원조해준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편안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 안에서 대학생은 자신의 문제해결과 대처능력, 자존감 등을 키워나가는 토양을 얻는다고 하였다 [32,33]. 이 결과는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이 높을수록 가족적응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4]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유형의 하위요인인 가족응집력과 역할안정성, 가족자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가족응집력이 강할수록 가족자원이 많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간에 상호지지와 유대가 강하고 역할이 잘 분담되어 역할안정성이 높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가족일수록 가족건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유형이 가족건강성[10], 또는 가족적응[24,34]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의사소통 과정의 정서반응과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도 가족건강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명료성은 영향력이 없었다.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있어 원만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방적 정서적 표현 및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는 대학생일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명확화는 많은 연구에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의 본질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20,35] 본 연구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추후 연구해 볼 과제이다. 개방적인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20,24] 탄력적인 가족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가족탄력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이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했는데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36,37]는 결과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접근은 성별에 따라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탄력성이 높은 탄력집단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므로 가족강점 관점 접근을 통하여 가족건강

성을 강화시키는 실천 개입이 효과적인 수 있음을 나타내며 미래 가족을 이룰 전환기의 대학생들에게 가족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의 영향력이 크고 가족강점이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가족강점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가족응집력을 강화하고 가족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과 긍정적 감정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도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감정표현을 할 수 있고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가족생활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가족건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G지역의 대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세 하위영역인 신념체계와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세부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대학생 시기는 스트레스가 많은 전환기 이므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보호요인으로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추후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차이가 나타나 추후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성 차이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족의 변화가 급격한 현대사회에서 강점관점의 가족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가족적 보호요인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미래 가족을 이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도 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세부 하위요인들을 밝힘으로서 중요한 하위요인들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가족과 개인을 대상으로 강점관점의 가족적 보호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나 실천 개입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J. Yoo, D. I. Seo, S. J. Hong, Y. J. Jeon, J. Y. Lee, Y. J. Oh, I. S. Lee, *Contemporary Marriage and Family*, Seoul, Shin Kwang Publisher, 2000.

- [2] Stinnett, N. DeFrain, J.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1985.
- [3] S. H. Choi, A study on healthy family factor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5.
- [4] Y. S. Ah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Olson's circumplex model for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1999.
- [5] Lazarus, R.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6] Walsh, F.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7] Hawley, D. R. Dehaan, L.,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vol. 35, pp. 283-298, 1996.
DOI: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6.00283.x>
- [8] Walsh, F.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vol. 35, pp. 261-281, 1996.
DOI: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6.00261.x>
- [9] Shilberberg, S. *Searching for Family Resilience. Family matters*, no. 58,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01.
- [10] A. J. Kim,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7, pp. 73-102, 2009.
- [11] Y. K. Lee, M. H. Jung,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1, pp. 111-134, 2013.
- [12] E. H. Kim, S. K. Yoo,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5, pp. 145-171, 2012.
- [13] H. Y. Park, "Factors Affecting Family Strength of Married Adults: Focused on the Family-of-origin Experiences", *Journal of Digital Policy vol. Management*, vol. 15, no. 9, pp. 184-194,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9.184>
- [14] I. S. Song, D. Hong, H. S. Park,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Happines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pp. 579-598, 2013.
DOI: <https://doi.org/10.13049/kfwa.2013.18.4.579>
- [15] H. K. Kang, "Family Strengths and Ego-resilience of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3, pp. 93-102, 2005.
- [16] E. J. Eo vol. Y. J. Yoo.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5, no. 4, pp. 269-285, 1997.
- [17] J. S. Lee, "A Study on Family Strength and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by 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18, no. 4, pp. 579-597, 2007.
- [18] Y. 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vol. 9, no. 2, pp. 119-151, 2004.
- [19] Antonovsky A, Sourani. T.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pp.79-92, 1988.
DOI: <https://doi.org/10.2307/352429>
- [20] Olson, D. 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 [21] Epstein, N. B, Baldwin, L. M, Bishop, D. S.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9, pp. 171-182, 1983.
DOI: <https://doi.org/10.1111/j.1752-0606.1983.tb01497.x>
- [22] Olson, D. H. *Family Inventory*,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23] McCubbin, H. I, Patterson, J, Wilson, L.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1980.
- [24] M. O. Kim,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 University, 2001.
- [25] E. J. Eo, Y. J. Yoo,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5, no. 4, pp. 269-285, 1997.
- [26] Y. M. Han, "The Mediation Effect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s Style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Hong-i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27] H. S. Keum, Y. H. Shin, H. Y. Kim,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Depression among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 pp. 171-178,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2.171>
- [28] J. M. Park,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atents of Preschooler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on Nurturing Attitude, Nurturing Burden and Family Strength",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11.
- [29] E. M. Hyun,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The Buffere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5, pp. 107- 126, 2007.
- [30]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Understanding Resiliency*. 1966.
- [31] Patterson, J. M, Garwick, A. W. Theoretical Linkages: Family Meaning and Sns of Coherence In H. McCubbin (Eds.) *Sense of Coherence and Resiliency: Stress, Coping and Healt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1994.
- [32] M. K. Kim, "Relationship on University Students' Strengths, Family Strengths,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vol. 14, no. 4 pp. 47-68, 2012.
- [33] S. J. Yoon, H. J. Kim, "The Rel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vol. Management* 11(8) p 23-30, 2013.

- [34] S. H. Yun,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Adaptation of Family Supporting Senior with Dementia",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4.
- [35] Beaver, W. R. Hampson, R. B. Measuring Family Competence :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 [36] S. R. Kang, H. I. Park, "Self-differentiation Level and the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 and its related Variables: Cas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eimyung Practical Science*, vol. 27, no. 2, pp. 19-37. 2001.
- [37] K. H. Song, "The Research of Family Health and Family Values perceived by Teenagers",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Korea, 2004.

현 은 민(Eun Min Hyun)

[정회원]



- 1992년 8월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가족사회학 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가족 및 노인복지, 건강가정